

## 계 열 문 항 1

<가>

요즘에는 뉴스 기사를 열 때마다 도표와 마주친다. 그런데 수치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크림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이 많은 수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도표를 이용한 덕분에 사람들은 군대 의료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더욱 많은 수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수집된 수를 분석할 필요 또한 커졌다. 도표와 함께 ‘평균’도 흔히 사용되었다. 나이팅게일은 두툼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전쟁 기간 중 매달 평균 환자수를 계산했다.

평균은 16세기 말부터 천문학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개별 천체 측정값에는 예외 없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은 측정한 값의 총합을 측정한 개수로 나눈 평균 측정값을 일단의 개별 측정값 전체에 걸쳐 축적된 전체 오류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가 쟀 토성의 속도 측정값은 오류를 가지나 여러 과학자들이 쟀 토성 속도 측정값이나 한 명의 과학자가 쟀 여러 가지 측정값과 같이 축적된 전체 오류값은 평균 측정값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측정값이 측정값의 참값(예를 들어, 토성의 진짜 속도)에 대한 기대 가능한 최대 근접치라는 것은 후에 수학자 가우스의 유명한 증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세기에 케틀레는 평균을 천체가 아닌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케틀레는 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의문을 던졌고, 인간의 행동에는 특정 패턴이 존재해야 한다는 답안을 찾는 과정에서 **평균인(l’homme moyen)**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평균인이 참 인간이며 개개인이 오류에 해당한다. 즉 그는 평균적 인간이 인간의 보편적 원형이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형의 결함 있는 모사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케틀레는 평균인의 개념을 키와 몸무게와 같은 계측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들, 예컨대 어느 개인이 환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틀레에게 평균인은 완벽 그 자체이자 자연이 꿈꾸는 이상이며 오류 없는 인간의 표상이었다. 케틀레는 평균적 인간을 우러러 받든 반면, 평균에서 벗어난 불운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먹는 혐오감을 가졌다.

<나>

영국 과학자 골턴과 관련한 일화가 있다. 1907년 어느 봄날 골턴은 항구도시 플리머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황소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도축했을 때 손질된 고기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를 목격하였다. 소에 관한 천차만별의 지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6펜스를 내고 산 티켓에 이름과 주소, 숫자(무게)를 적어 냈고, 그중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적어 낸 사람이 상금을 탈 수 있었다. 골턴은 소 무게 맞추기 게임에 참가한 집단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그 티켓 787개를 손에 넣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무게를 너무 크거나 작게 추정했다고 단정했고, 중앙값인 547kg을 민주적 결정의 결과값으로 선택했다. 실제 손질된 고기의 무게는 543kg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골턴이 제시한 대중의 선택은 정답에 매우 가까웠다. 골턴은 이 경험을 “인민의 목소리(Vox Populi)”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하였는데, 오늘날 그의 발견은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로 알려져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또는 연속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평균(average)’이라는 통계량(statistics)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의 대푯값으로 사용된다. 평균은 일상에서 평균 임금, 평균 시험 점수, 평균 온도 등과 같이 자주 쓰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 평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인 산술평균(mean),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median), 가장 흔한 값인 최빈값(mode)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설정의 기준, 즉 중심 경향값(central tendency)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평균이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등장할 때, 이것을 산술평균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종종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임금은 산술평균인데 반

해 지방정부는 평균 임금을 중앙값으로 따로 보고하는데, 여기서 ‘평균 소득’, 즉 산술평균과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 즉 중앙값을 구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영국 정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중앙값으로 보고하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 ‘평균 주택 가격’이라서 혼란이 발생한다. ‘평균-주택 가격인가 아니면 평균 주택-가격인가? ‘-’ 부호의 위치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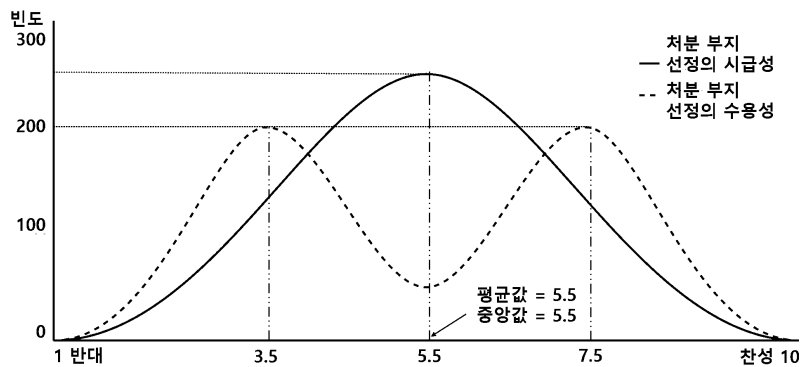
<다>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신장을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전형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중앙값, 즉 50%의 여성보다 크고 나머지 50%의 여성보다 작은 여성의 키)는 약 165cm이다. 평균적인 북아메리카 여성의 키(평균값, 즉 모든 여성들의 키를 더해 총 여성 수로 나눈 값)도 약 165cm이다. 이 데이터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은 같으며, 여성의 키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칭적인 형태로 고르게 퍼져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른바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앙값과 평균값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분포 상태에 따라 동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소득별 비율을 요약해 보여 주는 소득 분포 그래프는 종 모양의 대칭적 형태보다는 오른쪽 ‘꼬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모양을 ‘두꺼운 꼬리(fat-tailed)’ 분포라고 한다. 두꺼운 꼬리 분포는 극단적인 쏠림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 평균 소득은 중간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식당 고객의 시간별 방문 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는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peak), 즉 두 개의 최빈값을 가지는 ‘이봉(bi-modal)’ 분포로 나타난다.

다음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상의 A국가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이 긴급하다는 ‘시급성’과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본인 거주 지역에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A국가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4,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두 개 사항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를 질문하였고, 설문 참여자에게 10점(1=“절대 반대”, 10=“절대 찬성”)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의 소수점 단위까지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은 5.5점으로 동일했다. 상세한 응답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민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응답을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은 처분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수용성을 묻는 질문 각각에 5.5점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 시민 의견 설문 조사 결과

- 1-1. <가>의 ‘평균인’과 <나>의 ‘대중의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30자)
- 1-2. A국가 정부가 시민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 <다>, [그림 1]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600±60자)

## 계 열 문 항 2

&lt;가&gt;

‘명품’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70%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19%는 브랜드의 전통을 떠올린다. 무조건 값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명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명품을 고급스럽고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 추산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미국의 280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인 전체의 명품 소비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1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치 문화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매장은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이고 특급 호텔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호캉스’를 하는 투숙객으로 붐빈다. 몇 년씩 적금을 부어 고급 브랜드 시계나 보석을 사는 행태는 이미 일반화됐다. 명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소비는 더욱 부추겨진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치와 허영이 개인을 넘어 한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은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2%만이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명품을 통한 과시를 긍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의 과시가 용인되는 것은 ‘돈 많은 게 최고’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재력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명품 소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된다. 이에 대해 외신은 “한국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난다.”면서, “한국에서는 명품 아이템이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 상황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부자들만이 아니라 서민들까지 명품 구매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욕망의 충족이라는 점에 있어 평등해진 사회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그나마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명품을 과시한다면 결국 남들과의 차이는 다시 소멸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에서 삶은 명품 소비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더욱 궁핍해진다.

&lt;나&gt;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어떤 대상에 대한 어느 한 주체의 관계로 기술한다. 그리고 욕망의 근원을 욕망 주체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욕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한 대상을 욕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라르는 욕망을 ‘매개자’라고 하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관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계는 욕망의 모방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돈키호테가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은연중에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 다시 말해 모방 욕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라르는 모방 욕망의 기본적 속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것이 그것이다. 욕망의 이러한 속성은 흔히 실제적인 사용 가치가 없는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 게다가 없는 가치를 부여하면서까지 그 대상을 욕망하는 현상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소유를 통해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모방 욕망의 형이상학적 속성에서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면서, 이 욕망이 개인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주체가 모델을 자신과는 다른 우월자로 공공연히 인정하고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지 않을 경우, 주체의 욕망은 강렬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갈등도 격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체가 매개자와의 차이를 부정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델은 같은 대상을 욕망하는 경쟁자가 되며 이 경쟁은 집단 전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모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되는 순간 주체의 욕망은 배가되지만, 그 주체 역시 모델의 적대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욕망하는 개인 간의 관계가 평등한 집단일수록 왜 갈등과 폭력이 커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 <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욕망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루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욕망은 욕구와 구분된다.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이고 본능적 필요에 대한 바람이며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욕망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미술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할 때 그 스테이크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미술랭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압하거나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제한되고 억압된다. 억압된 욕망은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많이 의식한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직업이나 외양이 어떻게 판단될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을 그렇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정말 외부의 다른 사람일까? 라캉에 따르면, 타자란 물리적으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타자란 나와는 다른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안에서 자기로 환원시킬 수 없는 '낯선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중심에는 항상 나르시시즘이 놓인다. 라캉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실은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말하듯이, 이 나르시시즘 때문에 욕망은 자기실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살펴 보아야 한다. 어려서 물질적 궁핍함 속에서 자란 사람이 유독 과시 소비에 몰입한다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더욱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내면의 타자가 클수록 욕망은 강렬해진다. 그리고 그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자아는 소외된다. 욕망이 자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2-1. <가>에서 서술된 '명품' 소비 현상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가 각각 말하는 '욕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00±60자)